

제3회 단국융학철학워크숍  
: 곱을 향한 철학, 도예의 합창

철학과와 도예과의 교수님, 조교님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주, 박혜은, 이은채, 유연우, 정원탁-



## 1조 (Lovely Bear)

김민선, 김태훈, 박정현, 성주현, 이강선, 전판호, 최수현

「Lovely Bear」



## 제작목적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 그럴싸한 이미지를 부여했다. 입체주의적 회화가 깊은 철학을 담아낸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함의하지 않는다. 그저 예술인 척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기 획

모두 똑같은 옷을 입은 대중들이 작품을 구경한다. 작품을 보며 극찬한다. 더불어 제작자에게 환호를 한다. 제작자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이다. 대중들이 퇴장한다. 아무도 없는 작품에 제작자가 다가간다. 잠시 망설이다 이내 결심한다. 그리고는 작품에 침을 뱉는다.

## 해 설

어째서 자신의 작품에 침을 뱉는가?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인가?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망치로 부수거나 바닥에 내다 던지는 행위가 예술로 승화한다. 기존의 미학적 가치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작품을 파괴하는 동시에 기존 질서도 파괴한다. 적극적인 저항이다. 하지만 파괴가 예술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자신이 만든 작품이 물리적으로 해체되는 것이기도 하다. 파괴는 순간이다. 영속적이지 않다. 부서진 작품은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기획 속 제작자는 그것을 우려한 것이다.

제작자는 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미학은 대중들의 선호와 길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만든다. 출세하고 싶기 때문이다. 주류미학에 대한 저항과 출세욕의 인력사이에서 내적갈등의 파도는 요동친다. 작품을 부숴버리자니 여태의 명성이 아쉽고 명성을 누리자니 스스로에 대한 환멸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참다못한 제작자는 침을 뱉는다. 소극적인 저항이다.

제작자는 작품을 해체시키지도 않으면서 저항한다. 명성을 누리면서 양심을 고백한다. 너무나 비겁하고 졸렬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이다. 나약하고 이중적인 모습.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차마 마주할 수 없는 진심. 이 작품은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를 담아냈다. 침을 뱉는 제작자가 약한 것이 아니다. 파괴하는 제작자가 강인한 것이다. 우리는 침을 뱉는 그를 비난할 수 없다. 우리도 때때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김태훈 (조장)

추상적일 수도 있는 학문인 철학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밌을 것 같았다. 어떤 작품을 만들지 생각하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다.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 철학과 김민선

‘철학적 사유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 활동이었다. 또 그 표현법으로서의 예술에 대해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조가 선택한 ‘침을 뺏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과정들이 유쾌하고 즐거웠다는 말을 하고 싶다.

### 철학과 성주현

별 기대 안했는데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간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예술의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둘째,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글을 더불어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워크숍은 학부 기간 중 값진 시간으로 새겨진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철학과 전판호

제3회 단국융합철학 워크숍을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었다. 책만 읽는 철학 공부보다 도예학이라는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텍스트 밖으로 실현되어지는 철학에 대한 목마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학문과 철학의 융합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단국대학교 철학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철학과 최수현

도예과와 철학과의 융합 워크숍이라고 해서 약간 의외였지만 예상 외로 모두 멋진 작품이 나왔다. 다른과의 교류는 입학하고 나서 처음이었기에 신기하고 색달랐다.

### 도예과 박정현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이랑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걱정도 됐지만 같이 회의도 하고 작업도 해보면서 다른과와 여러 활동을 해보는 것이 재밌었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게 되었다. 또한 다른 과분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뜻 깊은 시간이었다. 물론 작품이 깨지기도 하고 수상을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길지 않은 시간동안 워크숍을 위해 노력해준 우리 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 도예과 이강선

이번에 철학과와 협업을 하면서 기존의 도예 작업과는 달리 작품의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한 번 단국대학교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 2조 (곰 발자국)

김주환, 김채현, 박민경, 심윤희, 이준수, 이희진, 정봉주

「이해라는 이름의 오해」



우리는 곰에 대해 알고 싶기에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는 곰과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곰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곰이 남긴 흔적과 행동을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것들을 통해서 곰을 해석하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었다. 즉, 우리는 우리들만의 범주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곰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곰이 먹다 버린 동물사체를 보고 곰이 육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곰이 나무에 자신의 발톱자국을 내면서 영역표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적을 통해 알게 된 곰을 온전히 ‘진짜 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곰의 모습은 온전한 ‘진짜 곰’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매개체로 바라본 곰이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만의 범주를 통해 곰을 보기 때문이다. 어쩌면 ‘진짜’ 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어느 곰은 나무에 발톱자국을 내며 어서 들어오라는 환영을 표시를 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곰의 발톱과 이빨을 보고 곰을 무자비한 포식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곰은 억울해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우리가 곰을 이해하기위해 취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자에 대해 이해할 때 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기에 앞서 자기만의 범주에 맞춰 스스로 선 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자제하려는 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김주환 (조장)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부담도 되고 귀찮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둘씩 작품에 대해 조원들과 생각하고 공유하면서 작품을 완성하니까 진짜 예술 작품이란 것을 만들어본 것 같다는 것에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경험이었다.

### 철학과 박민경

철학과 학생으로서 도예과와 작업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색다른 작업을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철학을 다른 학문과 융합한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한다.

### 철학과 심윤희

이런 기회를 통해 다른 과랑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철학과가 아이디어를 내면 도예과에서 멋진 그림을 그려주는 게 너무 조화롭고 멋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조들의 발표를 듣는데 다양한 아이디어와 작품들을 보고 짧은 시간 동안 완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들 너무 잘하신 것 같았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다음 워크숍 때는 더 적극적으로 선배들이 한 것처럼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어떤 과랑 함께 워크숍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된다!

### 철학과 이준수

1학년이라 워크숍에 참여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결과물이 딱 나온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요. 철학과 과 특성상 결과물이라는 게 나오기 힘들고 나온다 해도 글로된 것인데, 도판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확실한 형태로 나오니까 뿌듯함이 더 큼니다. 다음은 어느 과랑 워크숍을 진행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네요. 매번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예과 분들 저희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철학과 정봉주

전혀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학우와 매우 낯선 주제를 통해 융화되는 경험은 색다른 공부가 되었습니다. 표현한다는 행위를 통해 하나 됨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 도예과 김채현

이번 철학과와 함께한 워크숍은 내게 처음으로 진짜 작품이란 것을 만들게 해 준 시간이었다. 평소에 만들던 작품들은 내용에 있어서 깊이 있는 생각 없이 그저 만들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팀원 모두의 의견이 모여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워크숍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보고 워크숍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협동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도예과 이희진

혼자 작업할 때보다 여러 사람과 작업하면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융합을 통해 더욱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3조 (곰인)

권순호, 권인승, 김수민, 김수한, 송승욱, 이은경, 최영재  
「거울」



### 작품 의미 및 제작의도 - 자기 긍정과 내면의 가치

거울은 무엇인가? 거울은 현실을 반영하며, 반영된 현실은 거울 속에 투사된다. 투사된 현실을 바라볼 때, 개별자들은 각기 다른 생각에 빠져든다. 거울은 미래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현재에 연결된 과거 역시 불러일으킨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무게를 재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 거울은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를 ‘그러서 보여준다.’ 그러서 보여줌이란, 자신의 현재를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이상과 대비시키고, 결여를 자각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거울에 반사된 대상은 자신이면서, 자신이 아니다. 즉 현재의 자신이 아니면서, 미래에 되고 싶은 자신이다.

무언가에서 불러 일으켜지는 이미지는, 상像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은 자신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되며, 자신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신’이라는 울타리에 한정되어, 폐쇄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에서 마셜 맥루언Herbert Marshall McLuhan은 거울 역시 ‘상’을 불러일으키는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확장되면서,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체의 이미지에 적응하기 위해 한없이 매몰되어 감각이 나르코시스narcosis(마비)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매체 속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자신을 바라보면, 이미지로 인해 마비된 채 발생된 확장에 대한 욕망은 사실 진정한 내면의 욕망을 대체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자신을 긍정하고자 하는 내면적 욕망은 매체의 이미지에 가려져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의 가치를 판단할 때 단지 자신의 몸무게를 더 줄여줄 수 있는 기능적 확장의 측면에서 생각하며 이러한 가치 판단에 의해 내면적 욕망은 매몰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것을 인지할 때, 거울은 강요된 ‘상’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반사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외면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의 폐쇄적인 외면적 이미지에서 진정으로 탈피한 상태,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거울 앞의 웅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외면적 측면에 골몰한 채 자신을 인간으로 바꾸었던 과거와 작별한다. 동시에, 자신의 진정성을 반성토록 만드는 거울을 직시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자신은 내면의 가치를 중시한 꿈 상태의 자신임을 거울을 마주보며 다시금 깨닫는다. 이는 웅녀의 과거인 동시에 지향이다. 미디어의 이미지에 매몰되어 자신의 외면을 변화시킨 과거의 사건이 거울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즉, 웅녀는 사실 꿈이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웠고, 내면의 가치를 긍정해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웅녀는 양손에 들고 있는 기능적 확장을 위한 쭉과 마늘을 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욕망은 언제나 자신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고통 없이 다시금 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이러한 ‘탈피’의 과정은 진정한 욕망이 ‘내면’에 존재하기에 쉽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자체는 어렵기에, 웅녀는 언제나 거울에서 자신의 외면을 투영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을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확장 차원에서의 외면의 가치와 자기 긍정에서의 내면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을 표현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현대 사회는 무수한 거울, 즉 감각의 마비를 유발하는 수많은 미디어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 내면의 진정한 가치는 거울이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확장된 자신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거울 앞에 놓여있는 모형은 신화 속 웅녀일 수도, 현대인일 수도,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일 수도 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속에 놓인 관람자는 이 작품으로 하여금 웅녀의 입장에서, 현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작품’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면과 외면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된다.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송승욱 (조장)

평소에 예술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예과 학우 분들과 함께 예술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예술이 어렵더라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시각을 넓히는 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과 조원들이 보는 시각을 능동적으로 종합하여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힘든 작업도 함께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협동심 또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융합철학을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이번 워크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철학과 권순호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예 활동같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흔하지 않고 색다른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주어진 학과 과정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학교 내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더욱 창의적으로 뽐내기 좋은 행사였다고 느낍니다.

### 철학과 권인승

워크숍을 통하여, 주제에 대하여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깨달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철학과 이은경

도예과와 함께하는 워크숍으로 인해 타과생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 예술을 좀 더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철학과 최영재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혀 상관없는 학문일지라도 충분히 융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결과보다 과정이 더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 도예과 김수민

이번 철학과와의 워크숍을 통해 관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진짜’ 작가가 되어본 시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대화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스스로도 놀라웠었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을 건드려 주신 철학과 학우 분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앞으로의 전공 활동을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생각의 눈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한 작품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더 좋겠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 이번 워크숍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도예과 김수한

개교 70주년이란 의미 깊은 날로부터 나온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의미 깊은 날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철학과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 이 행사를 빛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4조 (팀이름몇글자까지가능한지몰라서이렇게만크이나길게지어봤조)

김치우, 김혜원, 윤창록, 장문영, 전소영, 최동식, 황준희

「곰과 “곰”」





이 작품은 인간의 이면이 공존해 있는 모습을 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꿈이라고 여겨지는 이미지는 그의 본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꿈은 야생에서 이름난 폭군이다. 실제로 꿈은 매우 똑똑하며 행동도 재빠르다. 그 날렵하고 민첩한 동물은 지상 최강의 육식 동물로 손꼽히는 생물 중 하나이고, 그 발바닥으로 내리치는 힘은 약 1톤에 해당하는 힘이어서 이 발바닥에 맞아 살아있을 생명체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꿈은 인간이 되고 싶어 했기에, 인간과 함께 하고 싶었기에 자신 본연의 모습을 썩과 마늘로 감추고 결국 그 모습을 동굴 깊숙한 곳에 두고 나와 인간이 되었다. 테디 베어는 자신의 모습을 귀여움으로 숨겨 언제나 우리 침대 곁에 있는다. “미련한 곰탱이”는 척하는 모습으로 재주를 부리고 돈을 사람에게 가져다준다. 반면 이러한 이미지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타자에 의해 규정되어 씌워진다. 타자에게 프레임 씌워진 꿈은 그들의 이미지 안에서 강제로 살아간다. 일반인 안에서의 꿈은 이제 더 이상 야생적인 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 꿈은 이제 “꿈 같은”, 즉 포근하고 다정한 이미지로써 우리에게 다가온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양면의 모습과 공생한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나는 언제나 타자와 대면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좋은 싫은 간에 나는 나를 타자의 시선에 대응하여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아군은 적군에게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약점을 숨겨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줘야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다. 또한 아주 똑똑하고 자만심 많은 나이더라도 거대한 학문의 경지 앞에선 누구보다 겸손해져야 그 학문과 대면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면에서 본다면, 많은 모습들은 그들의 모습이 아닌 타자들이 좋아하는 상품화된 모습으로 변장 되어 팔린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의 모습보다 겉으로 포장된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브라운관에 있는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이 아닌 스크린 속의 나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며 인기를 얻는다. “A는 B이다”고 낙인 된 존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B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결국 A는 B가 된다. 그것이 원래 어떤 것이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는가’이기 때문에 규정된 존재는 더 이상 “원래”라는 것은 없다.

두 측면의 나는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본 모습을 숨기고자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며, 타자에 의해 규정된 이미지에 따라 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만든다.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보여주며 나의 모습을 바꾼다. 동시에 우리는 생산된다. 그렇다면 계속 정제되고 규정된 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만든 나일까 만들어진 나일까?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윤창록 (조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며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즐겁게 워크숍에 임했기 때문에 비록 수상은 못해도 보람찬 경험, 새로운 사람, 성장하는 나를 얻었으니 이겼다고 생각한다.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두 분과의 융합은 새로운 결과를 창조하고 그로 인해 얻은 성과물은 하나의 약이 되어 내 몸과 마음에 알찬 깨달음이 되었다. 비록 4조의 팀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친구들이 서로 다 같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에 감사한다. 그 어려운 팀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낸 것에 감사한다. 모두들 고생했고 또한 모두들 즐겼으니 단국 철학 융합 워크숍은 내 기억에 좋은, 그리고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 철학과 김치우

바쁜 학기 와중에도 각자 시간을 내어 모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각자가 원하는 그림을 서로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을 통일시키는데 성공했고 철학적인 사상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것 또한 어려우면서도 매우 훌륭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학기 중에 작업하는 것이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철학과 장문영

철학과 도예를 융합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작업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다 같이 화합하여 이루어 낸 것이 뜻 깊었습니다.

### 철학과 최동식

이번 워크숍은 도예과와 함께 작업하였다. 워크숍의 주제는 꿈을 주제로 도판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도예과 분들로부터 도자기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식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시유, 도판에 유약을 입히는 작업을 하면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 워크숍을 통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도자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 이번 학기에 예술 관련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워크숍에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다. 워크숍 당일에는 많은 조들이 작품에 대해 발표를 했다. 발표를 들으니 회의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많았다. 덕분에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나에게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이런 유익한 시간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철학과 황준희

처음 참여하는 철학융합워크숍은 철학과 전혀 다른 분야의 학문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활동이었다. 물론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방향을 찾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도예과 팀원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어쩌면 평생 보지도 못했을 도자기 시유작업도 같이 해보고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가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눈앞에서 보았다. 처음 이 워크숍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지금 끝나고 와서는 이런 경험들이 합쳐져 나에게 소중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기억되었다.

### 도예과 김혜원

같은 예술계열이 아닌 아예 다른 과와 연합해서 하는 워크숍인지라 걱정도 되고 기대되기도 했지만 서로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된 것 같아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이 모여 하나의 주제로 작품을 구상하고 접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서로를 도우며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있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융합워크숍을 활성화한다면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도예과 전소영

다른 과와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것이 흥미롭게 와 닿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간을 들이며 서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디자인 구상이 쉽지 않았다. 다만 도예를 철학적 주제로 접근하는 에서 꽤나 재미있는 발상이 있어서 인상 깊었다. 또한 내가 가진 틀을 깨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였다. 도예과이자 미대인 나는 아무래도 미적인 부분을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철학적 사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신기한 일이었다. 앞으로 나의 작품을 풀어가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5조 (자웅[熊]동체)

김선, 김태환, 손유진, 손동휘, 손지원, 오정인, 최은진

「곰탕 : 곰의 밀바탕」



## 작품내용

작품의 외적인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작품이 양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작품과 차별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꿈의 모습이 가진 이면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뒷면엔 누가보아도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다시 말해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꿈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희 작품의 테마가 “모자이크”인만큼 뒷면에도 모자이크의 느낌도 주고 야생적인 꿈의 느낌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꿈의 그림과는 구별되게 깨진 그릇을 이용해 배경을 채워 표현하였습니다. 앞면 역시 모자이크이지만 뒷면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앞면에서는 배경이 아닌 전체가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서 현실 그대로의 꿈, 즉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야생적인 꿈의 모습을 그려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면 앞면에서는 꿈의 속성, 혹은 상업적으로 이미지화된 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붙여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모자이크 조각조각에 맞게 도판 하나를 깎아 뒤에 다듬어 조각으로 사용하였으며, 팝아트 느낌을 주기 위하여 원색 그대로의 셀로판지를 조각들 위에 붙인 뒤에 여러 가지 이미지화 된 꿈의 모습을 붙였습니다. 셀로판지와 도판 사이에는 거울을 붙여 꿈이 붙어있지 않은 조각에는 그림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모습 또한 비치게끔 의도하였습니다.

## 기획의도

작품을 기획하면서 표현할 주제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불완전성의 이면에 있는 완전성’이었습니다. 작품에 앞면에는 이미지화된 꿈의 모습들을 붙여 표현했습니다. 일부는 꿈의 속성을 가지고 이미지화하기도 했고 일부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원래의 야생적인 꿈의 모습에서) 변형시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완전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또한 하나의 완전함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꿈의 일부분, 혹은 왜곡이 아니라 모두 같은 ‘꿈’입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꿈의 이미지는 모두 꿈이며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며, 뒷면에 표현된 꿈처럼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꿈으로 표현되어야만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꿈의 모습을 되찾고 불완전한 이미지를 극복함으로써, 즉 이미지화된 꿈에서 탈피해 원래의 꿈이 가지고 있는 야생적인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꿈은 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불완전한 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지화된 꿈, 즉 불완전한 꿈의 이면엔 완전한 꿈이 있고, 마찬가지로 불완전함의 이면엔 그 자체로 완전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도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활용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불완전한 개개인의 삶 역시도 그 자체로는 완벽한 삶입니다. 당신이라는 불완전성의 이면에는 그 자체로 완전한 삶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 기법으로 모자이크를 택한 것도, 모자이크의 조각 각각을 서로 다른 원색으로 표현한 이유도 차이성 속에 있는 동일성, 다시 말해서 불완전함의 이면에 있는 완전함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손지원 (조장)

처음 도예과와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막막하기만 했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한 시선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너무 고마운 경험이었다. 또한 그동안 잘 몰랐던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팀들과 생각도 나누면서 많이 배울 수 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참여해보고 싶다.

### 철학과 김선

처음엔 도자기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도판을 줘서 짜증났다. 내가 도예과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예술품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못하니까. 그나마 서로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도자기와 관련된 '미학' 아니겠는가. 또, 이러면 도예과가 한 분야의 사람들(도예쪽, 미술쪽)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힘들지 않은가. 인원분배도 좀 불만이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 제일 크게 배운 점은 내가 생각한 것을 작품 속에 표현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지였다. 철학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소양인데 게으름 때문에 자주 잊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 철학과 김태환

새로운 경험의 기회에 기대하며 참여한 워크숍은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철학과 도예의 조화로 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과정은 나에게 만만치 않았다. 도예 쪽은 말할 것도 없이 철학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여 팀 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진행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의 작품을 만들고 즐거웠고 다른 조의 작품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 더 기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많이 즐거웠다. 다음 워크숍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 철학과 손유진

철학과 도예가 어떻게 협력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팀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내놓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작업에 열성적으로 임하셨고 팀장인 손지원 선배의 기여가 작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기회가 있다면 도예과와 다시 한 번 워크숍을 진행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다.

### 철학과 최은진

다른 과랑 힘을 모아 어떤 작품을 만든 다는 것이 나에게 막막했다. 그래서 걱정도 많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했지만 막상 같이 의논하고 힘을 합쳐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도예에 대해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철학과 선배들과도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을 완성하고 나니 너무나도 뿌듯했고 조장이었던 지원오빠가 잘 이끌어줘서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입상하지는 못 했지만 뜻 깊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 도예과 손동휘

철학과들과 다 같이 하는 도자기협작은 생각 못한 발상이라 불안했다. 하지만 불안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문제가 전혀 거의 없었다. 서로가 생각 못한 것을 말하여 화합해서 이뤄갔던 그 기간은 매우 배울게 많던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신 손지원 조장님께 감사함을 느낀다.

### 도예과 오정인

다른 과와 함께 도자기 작품에 대해 무슨 의미를 담을지 어떻게 만들어갈지 의논하고 모여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라 의견이 안 맞거나 스트레스뿐일 수도 있겠다며 걱정했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다른 과의 사람들의 새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표현 등을 받아들이고 교합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다. 팀장이셨던 손지원 팀장님이 리더십 있게 팀을 잘 이끌어주셨고 다른 분들도 적극적이고 밝으셔서 팀 활동도 무난하게 흘러간 거 같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끝나게 되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 6조 (웅비)

권태혁, 김종민, 김한슬, 윤재영, 차민지, 최윤정, 한차성

「무제(無題)」



## 1. 작품주제

웅녀를 통해 천지인 삼재의 조화를 표현함과 아울러 그 기제를 작품 안팎으로 표현한다.

## 2. 구체적 의미

바닥판은 땅을 뜻한다. 바닥판에는 단국대학교에서 손수 퍼온 흙과 아울러 마니산 참성대 근처에서 퍼온 흙을 뿌려 일상적 삶의 터전과 신화의 특수한 무대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그러한 바닥판 위에 굳건히 서있는 역시 흙으로 빚어진 곰상이 웅녀이다. 이때의 웅녀는 아직 사람이 되기 전의 상태로 야성이 살아있는, 땅의 논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땅의 연장선이다. 웅녀의 뒤편으로 도판이 직각으로 서 있다. 마치 병풍처럼 서있는 도판에는 빨간 원이 투박하고 강렬하게 채색되어 있다. 이 도판은 하늘을 뜻한다. 하늘에 그려진 빨간 원. 그것은 곧 태양이다. 태양은 아직 곰 웅녀에게는 낯설게 다가오는 태양으로 한없이 따가운 빛을 내려찍기만 하는 파악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이다. 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자연은 이처럼 두렵고 낯설게 다가와 힘들게 한다.

그렇지만 웅녀는 쑥과 마늘을 먹는 자기 초극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는 인간이 되고 마는 존재이다. 인간이 웅녀라는 틀을, 기존의 세계를, 야성의 세계를 깨뜨리고 나뉜다. 개벽이다. 고행을 통한 자기 초극을 이룬 인간은 그 행위로 인해 신성하게 느껴진다. 인도의 요가사 수행자들이 비록 외면은 뼈쩍 말랐을지언정 우리에게 일종의 경외감을 느끼게 하듯이 자기 초극을 이룬 인간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 이제 더 이상 자연은 두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땅 위에 우뚝 선 인간 웅녀의 뒤편에 나타나는 붉은 원은 후광이다. 인간의 아우라다. 붉음은 고행을 통한 자유, 본능으로부터의 자유, 자연으로부터의 자유, 인간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다. 더 이상 태양은 그 빛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밝게 드러내준다. 그러한 빛을 제우스적 세계를 드러내주는 아폴론적 빛이라 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비로자나불적 빛이다. 비로자나불이란 Vairocana의 음역으로, 마치 태양의 빛이 만물을 비추듯이 일체 만물을 비추며 일체를 포괄하는 우주에 충만한 빛이다. 비로자나불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우주적 부처로서, 일체의 존재에 편재한다. 공간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티끌에도, 시간적으로는 지극히 짧은 찰나에도 두루 나타난다. 아폴론적 빛은 대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다면 비로자나불적 빛은 내면에 있다. 후광으로서의 태양은 웅녀 안에 있다. 인간 안에서 만물을 비추어 현현한다. 그러한 빛은 양지일 수도, 이성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인간 웅녀는 아직 곰이었을 때의 야성의 습기, 그것이 욕망일 수도 본능일 수도 있다,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땅의 존재가 땅을 벗어날 수 없듯이 필연적인 이치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제어하는 하늘의 태양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웅녀 안에서 천지가 조화된다. 그러나 하늘은 도판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작품을 바라보는 존재 모두가 하늘이다. 작품이 땅이다. 둘을 조화롭게 해주는 해설자. 그가 바로 인간이다.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김종민 (조장)

도예와 철학이라니 처음엔 막연하기만 했다. 그렇게 막연하게만 보이던 결과가 눈앞에 닥친 희열과 그 과정에서 순간치만은 않았던 용인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어떤 일이든 스스로 마음이 동하여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다.

### 철학과 권태혁

철학은 심오하고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도예과와 철학 융합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언어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을 사람들에게 미적표현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꿈이라는 친숙한 소재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철학이란 일상 속 많은 곳에 가까이 있는 범주 넓은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추상적이고 심오하게 느껴졌던 철학을 친숙한 학문으로 바꿔 준 값진 경험이었다.

### 철학과 윤재영

처음에 도예과랑 융합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도예랑 철학이 합쳐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팀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도예와 철학을 접목시키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시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도예로 철학을 작품화하는 과정은 추상적이게만 생각되었던 철학을 보다 구체적이고 더 와 닿게 만들어주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예와 철학은 서로 연결되어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 깊은 경험이었다.

### 철학과 최윤정

학과에서 수업만 들었을 때는 주로 철학의 사유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철학 사유의 구체화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융합 워크숍 참여를 통해 철학 아이디어가 도예라는 예술로 구체화될 수 있고 어떤 방식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수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철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철학과 한차성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혀 다른 분야가 하나로 융합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같은 조원들의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종합하면서 서로 다른 철학적 시각에서 나 스스로가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예술을 하는 도예과 조원들의 철학적 생각을 들어보면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생각보다 많은 범위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느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준비기간이 넉넉했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점이다. 하지만 아쉬움보다 배운 것이 더 많았던 내 대학생활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 도예과 김한슬

입학 후 우연한 기회로 철학과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하게 되었다.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철학과와의 작업이라 걱정이 되었지만 친절하시고 끝까지 잘 이끌어주신 철학과 분들 덕에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분들의 깊은 생각들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함께 여러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앞으로 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계기로 또 다른 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다. 짧은 시간동안 잘 이끌어주셨던 우리 6조 철학과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또 만나요♡

### 도예과 차민지

대부분 저는 혼자 작업하는 게 많았고, 과 특성상 여럿이서 같이 하는 일은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철학과랑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저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의 좋은 작품을 만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매우 뜻 깊었고, 나중에 제가 작업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준 것 같습니다.

## 7조 (B3AR배아)

강성욱, 김유정, 이윤아, 이윤재, 이지연, 박재현

「빛」



제작 목적 : 피상적으로 보이는 현상(곰)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면의 본질(그림자, 아기, 생명)의 모습을 보아라, 곰에 비친 그림자에서 생명의 꿈틀거림을 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작품을 제작 하였다.그리고 이번 도예와 철학의 융합을 꿈꾸는 워크숍의 취지가 단군 신화가 가진 신과 인간과의 이질적인 것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단군 신화를 착안하였다. 또한 이번 워크숍 주제인 곰이 가진 한국 고유의 뿌리 깊은 토테미즘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단국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껏 쉬지 않고 달려온 자랑스러운 모교 단국대학교가 더욱 생명력 있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품 제작의 의의로 담았다.

작품의 의미 : 주어진 3개의 판을 연결하고 도자기 형태의 프레임 안에서 하단에 웅크린 곰 형상이 있고 그 그림자로 웅크린 아기(태아)의 그림자가 텃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이러한 작품의 특징이 가진 의미는 한국의 고대 신앙 단군신화에서 웅녀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사람이 된 신화에서 죽음(동굴)으로부터의 부활, 생명(동굴을 생명이 잉태되는 장소로 비유)의 재탄생, 아이가 자궁 속 어둠에서 세상의 빛으로 나오는 이미지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빛으로 나옴으로서의 유사함에서 재탄생이라는 동일성을 포착하여 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강성욱 (조장)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철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평소 학문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철학보다는 직접적으로 현실과의 접점 속에서 드러나는 철학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철학과 융합, 내가 관심 있는 연극, 미술, 클래식음악 등 다른 예술과의 융합 등 하고 싶은 게 많았다. 조원들과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점차 윤곽이 선명해졌다 과정도 좋았고 그만큼 결과도 좋았다. 예술을 하고 싶은 나의 꿈에 이번 워크숍은 큰 도움이 되었다.

### 철학과 김유정

도예과와 함께한 워크숍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함께 하며 내가 고려하지 않던 것들을, 고려할 수 없던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대학에 입학한 지는 1에서 4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철학과와 도예과는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또 다른 세계를 만나 즐거웠고 후에도 이 워크숍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철학과 이운재

나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도예과와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예술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앞으로도 이렇게 철학을 다른 학문과 결합시켜 워크숍을 진행한다면 다른 학문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높아지고 관심을 갖게 될 거 같아서 좋을 거 같고 이번 워크숍도 좋았다.

### 철학과 박재현

단국대 철학과가 융합철학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그걸 몸소 체험할 기회는 잘 없어서 아쉬웠는데 전혀 다른 학문인 도예과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을 창조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 도예과 이윤아

이번 도예과와 철학과가 함께한 워크숍을 통해 각 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 도판위에 철학적 의미와 도예의 이미지를 그려내 색다른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의 특성을 이용해 서로 협동해서 만들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 느꼈다.

### 도예과 이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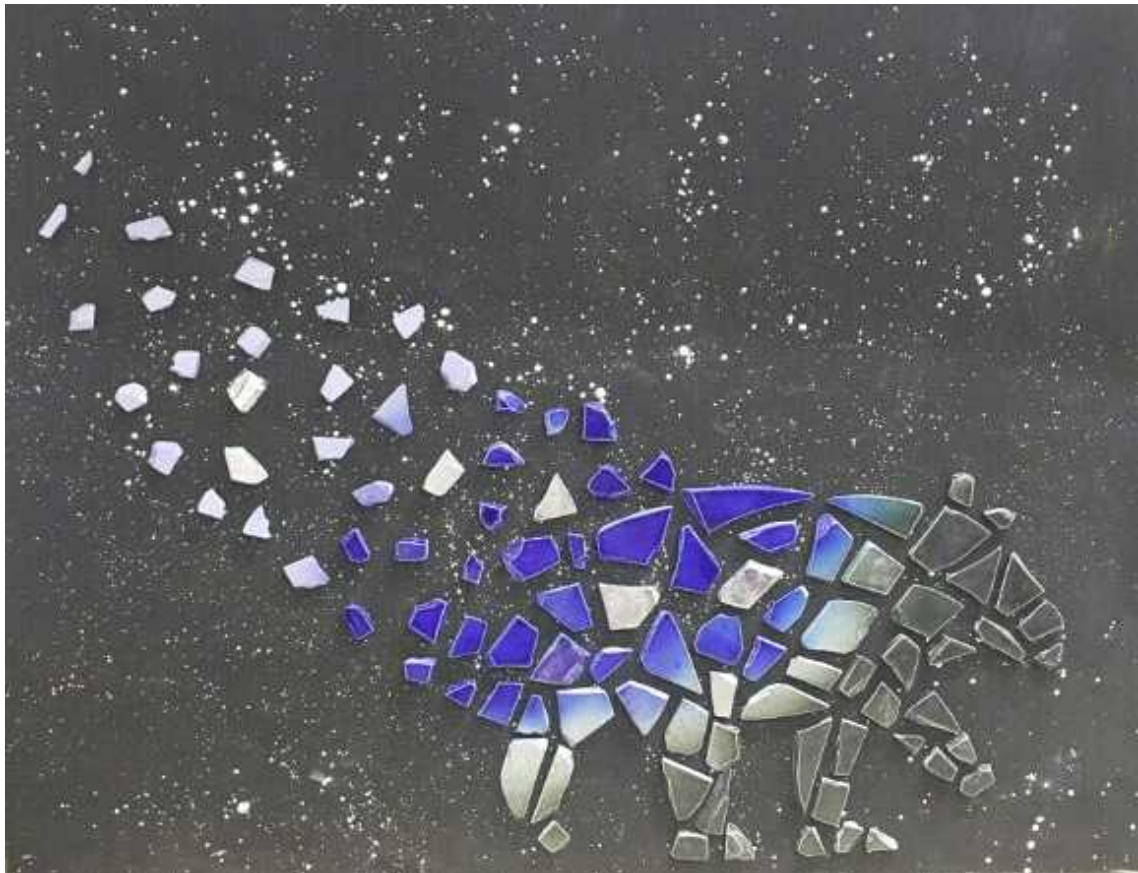
처음에는 철학과와 도예과가 서로 스며들어 마치 하나의 과처럼 잘 만들어 나갈지 의문이 들었었다. 하지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런 의문이 사라졌다. 각자가 맡은 바를 다하고 서로에게 미루지 않은 점이 우리조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디어 조사부터 워크숍 당일까지의 시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6명의 노력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철학과와 융합을 통해 여러 가지의 생각을 들 수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흔쾌히 참여할 것이다.



## 8조 (나이트스카이 Night sky)

권채민, 김정운, 서찬기, 이지영, 최재훈, 최지원, 황현우

「100-1」



## 1. 서론

우리 삶은 수많은 생명과 죽음들로 가득 차있다.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개별자들에게 삶과 죽음은 양 극단에 서서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명, 즉 살아있음을 찬양하며 죽음을 배척하려한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위해 노력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종교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한다. 개별자에게 죽음의 속성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며, 삶과 단절되어 있는 것, 혹은 악인에게 내려지는 극적인 최후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죽음은 삶과 대척점에 서서 생명의 분리만을 의미하는가? 죽음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만 하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싶었다.

## 2. 작품해설

작품의 검은 배경은 우주이며, 수많은 하얀 별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별들이 모인 조각들이 뭉쳐서 꿈, 큰꿈자리를 형상화한다. 각각의 별들은 개인이며, 하나의 생명이다. 별은 자신을 불태워 빛낸다. 개인 또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자신의 생명을 빛낸다. 촛불의 심지처럼, 서울의 야경이 빛나는 것은 그 불빛 안에서 노동하는 회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명을 열정적으로 불태워 빛내는 개인이 모여 작은 조각들을 이뤄낸다. 가정, 직장, 동호회 등, 이런 공동체들이 뭉쳐 별자리, 즉 사회를 만든다. 큰꿈자리, 즉 꿈의 형상으로 사회를 표현한 이유는 Bear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의 양면성 때문이다. Bear는 명사로 꿈을 의미한다. 꿈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의 최상위포식자이다. 그런 면에서 꿈은 지배하는 자로 보인다. 반면에 Bear의 동사적 의미는 ‘날다’, ‘견디다’이다. 민중은 지배자의 지배를 견디면서, 자연과 직접 마주치며 생산물을 생산하는 주체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은 꿈이라는 형태 안에서 하나가 된다. 즉, 꿈은 보는 방식에 따라 지배자가 될, 수도, 민중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스피노자의 신이 속성에 따라 여러 양태들로 표현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바탕에는 검은 우주가 깔려있다. 검은 우주는 별들이 빛날 수 있게 해준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음이 없는 무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은 기약 없는 일에 대해 무한히 미뤄간다. 죽음에 의해 제한되고 나서야, 우리는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은 우리를 한정짓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다.

## 3. 작품 오마주 (말레비치의 흰 바탕의 검은 사각형) 와 제목의 의미

검은 바탕은 말레비치의 작품 ‘흰 바탕의 검은 사각형’의 검은 사각형이기도 하다. 말레비치는 인식되는 대상 그 너머의 물 자체를 표현하려했다. 물자체 위에 그려진 삶과 죽음은 현상으로서의 세계, 즉 현실의 세계를 의미한다. 조각의 개수인 99또한 100에 하나 못 미치는, 부족한 세계인 현상세계를 의미한다. 말레비치는 절대주의 회화를 통해 인식 가능한 세계너머를 그리려고 하면서 예술과 현실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또한 분명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닿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말레비치의 그림 위에 흩뿌려진 하얀 점들과 조각들은 형식적 아름다움의 추구하고 현실세계의 아름다움이 맞닿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 위한 장치이다.

작품은 현실에서 분리되어 규정되는 순간 생명을 잃고 박제되어버린다. 그렇다고 현실과 동일해져버린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기에 작품은 현실의 연장선상에 놓여야한다. 현실과 구분되지만 다르지 않은 그 지점에 말이다. 작품에 고리를 건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 고리는 액자에 대한거부이다. 액자는 세계를 액자 안의 세계와 액자 바깥의 세계로 나눈다. 액자 안의 세상은 정지된 세상이다. 그곳에서 작품은 자신의 생명 성을 잃어버린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액자 안의 세계로 편입되는 것을 거절해야했다. 작품의 제목 또한 작품을 제한 짓는 요소이다. 그러나 제목은 한편으로는 그 작품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을 숨겨놓았다. 제목에 따라서 감상자의 시선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는 그 시선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이다.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서찬기 (조장)

정말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사고하는 철학’을 넘어, ‘보는 철학’의 지평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구체적인 형상과 실체가 없는 것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다보니 배운 것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 항상 아쉬움을 품게 만들었는데, 이번 도예과와의 협업은 그러한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커뮤니케이션 학부와의 협업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참가인데, 두 번의 참여에서 모두 철학의 또 다른 지평을 경험하고 타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바, 향후 워크숍 참여를 숙고하게 될 뜻 있는 후배들에게 꼭 참여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뜻 깊고 보람찬 워크숍이었지만, 두 번의 참여에서 제가 속했던 조가 모두 3등에 그쳤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팀장으로써 고생해준 팀원들의 노고에 걸맞은 상을 안겨주지 못했다는 점이 못내 미안하네요. 모쪼록, 기회가 닿는다면 졸업 전에 꼭 다시 참여하고 싶은 워크숍이었습니다. 좋은 작품 만든다고 수고해준 팀원들과 뜻깊은 자리 마련해주신다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감사인사 전하며, 이만 줄입니다. 4차 5차 워크숍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 철학과 김정운

이번 워크숍으로 인해 처음으로 다른 과랑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즐거웠습니다. 도예과라는, 어떻게 보면 철학과랑은 전혀 접점이 없던 과랑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의 도예과 학우 분들이 낯선 철학이라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멋진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몇 주 안 되는 시간동안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또 다시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 철학과 최재훈

예술작품과 철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언젠가 한 번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원들과 소통하면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작품이 나왔고,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같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철학과 황현우

철학의 실용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철학은 실용성이 없는 학문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철학이 다른 학문과 연계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유익하고 재밌었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도예과 권채민

철학과와의 워크숍 정말 즐거웠습니다. 생소한 과와 융합 워크숍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고 조원들 모두 각자 본인이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해주셔서 순조롭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충분치 못하고 만들 수 있는 작품의 한계가 조금 있었던 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또 참가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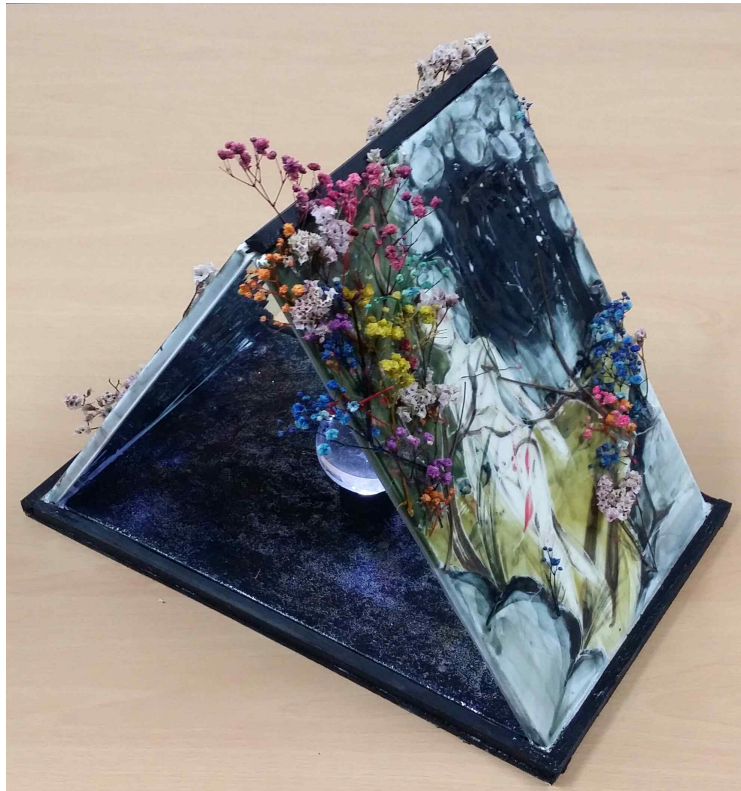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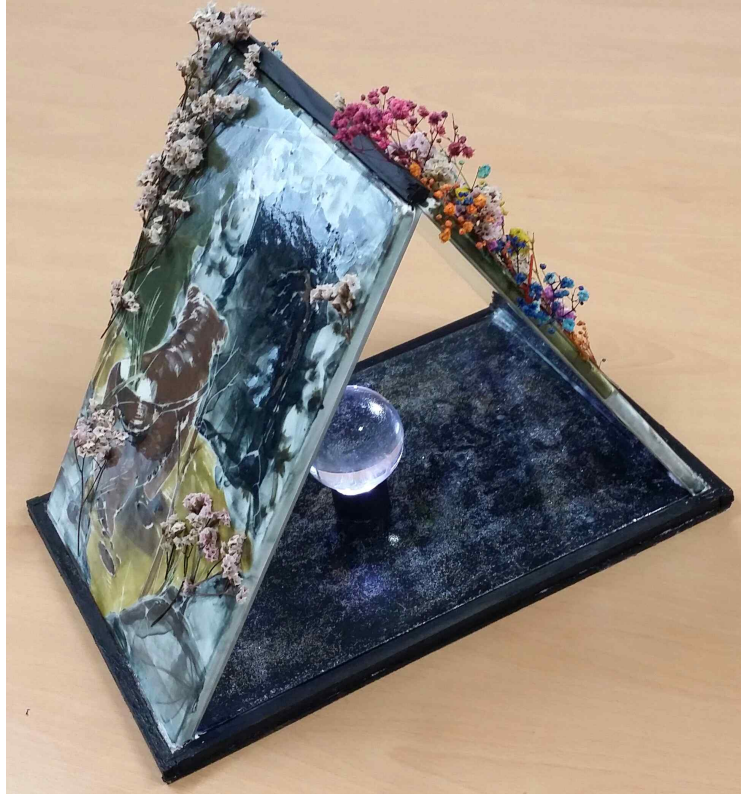
### 도예과 이지영

철학과 워크숍을 통해 힘든 점도 있었지만 힘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조원들과의 단합이 잘되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조롭게 제작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도자뿐만 아닌 철학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워크숍이 있다면 또 다시 참가할 생각입니다!



## 9조 (은하철도999)

김가람, 김민석, 김용만, 모성환, 손지민, 정진솔, 조시윤  
「be」





1. 목적 : 이 작품을 통하여 정지에서 나아가 진화, 변화하는 역동적인 우리가 되고자 함을 일깨움과 동시에 자기 삶의 대한 회상 및 미래에 대한 상상 제시

2. 의미 및 해석 : 꿈은 인간이 되고 싶어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속 지독한 암흑은 죽음을 상징하며, 창조 이전의 모태를 상징하기도 한다. 꿈이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현상태의 자신을 부정하고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 죽음 속으로, 또 모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꿈은 100일 동안의 성숙기를 거친 후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온다.

동굴 밖은 빛이다. 빛은 생명을 뜻한다. 이때 꿈은 예전 자신의 짐승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재탄생되어 걸어 나왔다.

헤겔은 이 세계를 유동적이며 발전하는 운동적인 세계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 세계는 즉자와 대자의 교호를 통해 종합을 낳으며, 이 과정의 연속이 진리라는 것이다. 이 원리를 옹녀에게 적용해본다면 꿈은 즉자이다. 이때 꿈은 자기가 꿈인 것을 아직 모른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꿈의 형체를 띠던 그 무엇이 자신이 꿈인 것을 깨달은 순간, 자신이 꿈이라는 삶의 반(즉 자기부정)이 생긴다. 이 상태가 꿈의 대자이다. 꿈이 암흑의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의 죽음 또 100일간의 성숙기를 거치는 것은 대자안의 서로 상반되는 매개가 융합하는 과정이다. 그 결과 빛으로 걸어 나오는 인간은 헤겔의 용어로 “즉자 겸 대자”이자 종합인 것이다.

인간의 모습은 지금 우리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란 것을 안 순간 그것의 반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이 대자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항상 변화하고 어딘가로 향해가고 있다. 꿈은 인간으로 재창조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인 나는 어디로 향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빛나는 구”로 표현했다. 빛나는 구로 표현한 이유는 종합의 모습이 아직 즉자인 나에게는 “미지의 x”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빛나는 구는 미지의 x를 나타낸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빛나는 구 자체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거울로 표현했다. 빛나는 구가 즉자라면 거울을 비추는 순간 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동시에 “빛나는 구가 아닌 것”을 떠올리게 되고 이 과정이 대자가 된다. 그 다음 단계인 종합의 형태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은 다시 “미지의 x”를 뜻하는 “빛나는 구”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꿈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빛나는 구가 되었다는 1,2차원의 변화를 넘어 3,4,5,6... 무한히 운동하는 모습을 우주와 구를 비추고 있는 양쪽 거울로서 표현했다. 더불어 가장 적은 선분으로 만들 수 있고, 모든 다각형을 나누었을 때 그 최후까지 기본이 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삼각형으로 작품기초 토대를 잡았다.

인간의 궁극적 진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 자신의 모든 체계이다. 그러므로 작품은 과거 나의 모습(꿈)과 변증법적으로 변해 현재의 내가 된 모습(사람)과 다음 내가 변할 모습(빛나는 구)과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나(우주, 거울, 삼각형)를 표현함으로 인간의 궁극적 진리, 그 자체를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지의 x”는 끊임없는 변증법적 변화를 반복하는 인간의 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x”는 형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도형인 구와 투명함, 전통적으로 진리를 상징하는 “빛”으로 표현한 것이다.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모성환 (조장)

진정으로 융합이 뭔지 피부로 느끼게 되는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책 속의 철학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철학을 본 것 같습니다.

### 철학과 김가람

같이 작업한 분들도 너무 좋았고 철학과 도예라는 학문의 융합이 정말 좋았어요. 작업기간은 그 이상으로 재밌고 뜻 깊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철학과 김민석

아름다운 시간, 철학과 도예의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부디 소외 받지 않는 철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철학과 김용만

도자를 통한 표현들이 한정되어 아쉬웠지만, 그 한계성에서 최대한 팀원들과 맞추며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새로운 활동에 뜻이 깊었습니다.

### 철학과 조시윤

철학을 도예라는 예술과 하나로 융합하여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즐거웠습니다.

### 도예과 손지민

아름다운 시간, 철학과 도예의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부디 소외 받지 않는 철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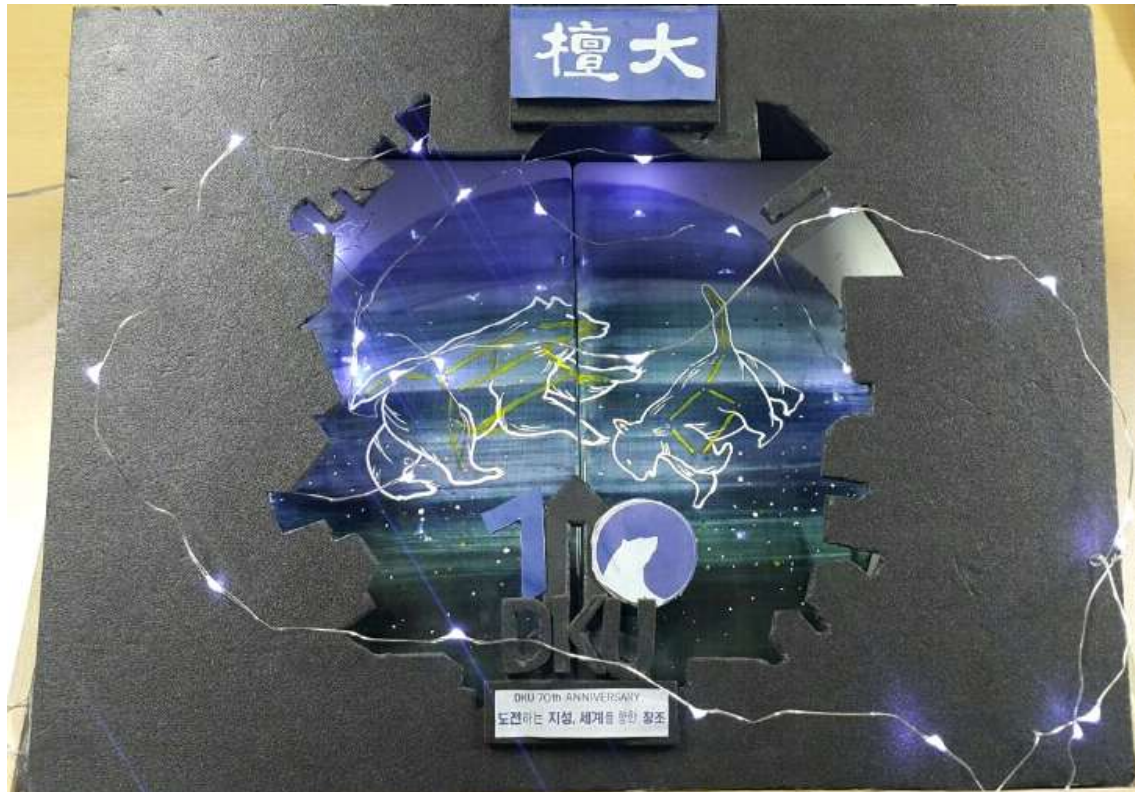
### 도예과 정진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철학과 분들도 만나고 2등도해서 좋았습니다.

## 10조 (공조)

김소정, 김찬, 박선미, 이영빈, 정종호, 조운솔, 최유진

「세계의 두 얼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기예(technē)와 탐구(methods),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이번 융합 워크숍의 두 축은 도예와 철학이고 이 둘을 융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좋음이란 무엇인가? 도예와 철학을 각각 살펴보면 도예에 있어서의 좋음은 훌륭한 도자기이고, 철학에 있어서는 Philosophia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둘의 합으로서의 좋음은 지혜가 담긴 훌륭한 도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작업의 목표는 ‘곰’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보기에도 훌륭하고<sup>1)</sup> 그 안에 지혜가 담겨있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고 이때의 지혜는 곰에 대한 독창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우리 조는 곰을 통해서 세계의 인위성과 자연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제 곰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가를 설명하려 한다. 인간은 일차적으로 신체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사유한다. 예컨대 이번 워크숍의 주제인 곰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신체가 맞닿아 있는 우리 학교의 상징 동물인 곰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조의 생각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우리 학교의 곰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학교의 곰은 창학 이념과 상징 동물을 소개하는 문구에서 드러나듯이 단군신화 속의 곰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 단군 신화 속의 곰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일단 단군신화 속 곰은 인간이 되고 싶은 원(願)과 인간이 아닌 분(憤)을 바탕으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믿음(信) 하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인간이 된 존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단군신화 속 곰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존재인 동시에 동물성을 부정하고 인간성(인위성, 인간의 이성적 측면)을 긍정하는 존재라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이러한 곰의 특성은 올해 70주년을 맞아 단국대가 내건 슬로건인 “도전하는 지성, 세계를 향한 창조”와 부합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발상에 착안하여 우리 조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을 작품에 표현하려 했다. 이러한 발전의 상징으로 대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발전의 근원이 된 우리 대학을 표현하면 더욱 작품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대학의 건물들을 인위성을 드러내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만든 우드 락을 통해 표현했다.

한편 현대에 와서 비약적인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인해 인류는 신체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다른 지역권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세계화라는 추세에 맞추어 전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사유도 한국이라는 좁은 우리의 머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라는 넓은 우리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곰에 대한 사유도 다른 지역권의 곰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서양의 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서양의 문화는 고대 그리스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에 그리스 신화 속 곰이 나타내는 의미를 보려고 한다. 그리스 신화 속 곰에 대한 이야기는 칼리스토와 아르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아르테미스의 요정 중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끈질긴 구애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고 아르카스를 낳는다. 이를 알게 된 헤라에 의해 칼리스토는 곰이 되고 만다. 청년이 된 아르카스는 사냥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사냥 도중 자신의 어머니인 곰을 만나게 된다. 자신의 어머니가 곰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는 아르카스는 곰을 향해 활을 겨누고 그 순간 제우스가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비극을 막기 위해 하늘로 올려, 칼리스토는 큰곰자리가 되고, 아르카스는 작은곰자리가 되었다. 이 신화 속에서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는 삶과 죽음을 나타낸다. 큰곰이 작은 곰을 낳았고, 죽음으로써 별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인간, 더 나아가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사건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 두 개의 별자리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성을 내포한다.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밤하늘의 떠 있는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를 도자기에 그렸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단국대학교 건물과 밤하늘의 별자리를 함께 표현한 것은 동양과 서양에서 나타나는 곰의 메타포적 의미의 융합, 즉 인위성과 자연성의 공존을 보여준다. 즉, 곰을 통해 이 세계에 드러나는 인위성과 자연성을 통합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재료적 측면에서도 인위성을 드러내는 우드락과 자연성을 드러내는 도자판을 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점을 드러낸다.

1) 도예에서는 크게 물레와 조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한 작업은 조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보는 이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 발표 사진



○ 단체 사진



## ○ 참여 후기

### 철학과 정종호 (조장)

작품을 만들면서 협동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의 단출한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보태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되었을 때 나 혼자서는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혼자 만들었을 때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철학과 김소정

대학 와서 인문관이 아닌 미술관이라는 색다른 공간에서 다른 과 학우들과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색다르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또한 하나의 종합된 아이디어에서 여러 명의 생각이 대화를 통해 더해지고 발전되어 지금의 최종본이 되었는데, 협력의 힘과 융합적 사고의 힘을 느껴서 융합학문의 필요성을 다시금 체감하였다.

### 철학과 박선미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처음이라 초반에는 막막하고 나의 아이디어가 부족했지만 선배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다 같이 협동하니 철학과, 도예과와 우리의 생각 모두 표출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성격이 전혀 다른 두개의 과가 만난 워크숍임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과가 융합을 이룬다면 충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 철학과 이영빈

전체적으로 작품이 신비로웠다. 하얀색의 도판 위에 검은색의 시트로 죽전캠퍼스를 새겨놓았을 때는 혼돈하면 떠오르는 검은색 위에 질서를 새겨놓은 것 같았고, 미완성이던 작품이 구워지면서 완성이 될 때 줄어드는 그 크기는 완전해지면서 스스로 부풀리지 않는 모습이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철학과 최유진

도판이라는 바탕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다. 평소에 그림을 그리던 판이 도화지라는 바탕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도화지와 비슷하게 도판에도 여러 색을 입힐 수 있고 더욱 다양한 우드락을 이용하여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표현할 수 있었기에 안심이 들었다. 곰 융합 등의 주제만으로도 철학적 사고로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게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다.

### 도예과 김찬

처음 철학과와 워크숍이라는 얘기를 듣고 큰 혼란에 빠져있었다. 도예학과와 철학과?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라는 교수님들이 원망스러웠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신 것은 아닌가? 하지만 내가 틀렸다. 호흡이 전혀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철학적 사고와 예술적 사고가 만나 탄생한 작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평소 틀에 박혀 작업하던 나에게 철학과와의 작업은 날 새롭게 만들어주었다. 나의 작품에 미쳐 생각하지 못한 감성 스토리텔링 등 매우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나의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보다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 같아 만족했다.

### 도예과 조윤솔

혼자 작업하던 1학기, 2학기과 달리 워크숍이라는 특수한 경우인 철학과와의 융합 작업은 너무나 신선한 경험이었다. 막막했던 처음과 다르게 곰의 의미와 융합 워크숍의 의미를 하나씩 조원들과 찾아나가며 작품을 구상하는 작업은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작업과정 중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 고민을 하고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태껏 혼자 해온 작업과 달랐지만 조원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는 융합 워크숍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작품이 완성되고 함께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냈다는 것에 혼자의 결과물보다 배로 뿌듯하고 배로 의미 있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함께"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다.